

‘마스크 착용 의무화’...광주·전남 미착용 신고 237건

광주, 월별로 지난 5월 33건·6월 61건·7월 155건으로 증가
일부는 거부하거나 행패 부려 신고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광주와 전남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실내·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위반 신고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모든 공간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난 달 23일부터 31일까지 광주지역 159건, 전남 78건 등 총 237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대중교통·다중시설에만 적용되던 지난 5월부터 지난달 22일까지는 각각 286건, 70건이다.

월별로 광주의 경우 지난 5월 33건에서 6월 61건, 7월 155건으로 증가했다.
식당과 카페 직원, 버스·택시 운전기사 등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할 경우 대부분은 곧바로 착용하거나 없을 경우 인근 약국 등에서 구입하지만 일부는 거부하거나 행패를 부려 신고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날 오전 10시46분께 광주 서구 한 카페에서 A씨가 행패를 부리다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A씨는 “날씨가 더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면 답답하다. 밖에 나가서 착용하겠다”며 직원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5일 오후 11시35분에는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장에서 20대 7~8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보드를 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이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지시한 뒤 현장을 떠났다.
전남지역에서는 지난달 28일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기사를 폭행해 50대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다.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형사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각각 9건, 8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마스크 의무화’ 이후 착용을 하고 있지만 날씨가 더워 잠시 벗거나 상대방에게 의사전달이 되지 않아 턱에 걸치는 경우도 있다”며 “사안이 경미한 경우 현장에서 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상태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최



마스크 착용하고 수업듣는 수험생들. 고의 방역인 만큼 나와 타인을 위해 착용을 하고 부득이한 경우 조금 떨어져서 이야기 하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오유나기자

전남 ‘감염취약’ 요양원 코로나19 비상...환자·보호사 확진 잇따라

두 요양원 모두 2주간 코호트 격리조치

전남에서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원의 환자 이어 요양보호사가 잇따라 감염돼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1일 전남도와 장성군에 따르면 장성 북하면 소재 모 요양원 요양보호사 A씨가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90대 할머니(전남 153번)를 담당해 온 요양보호사다.
A씨는 지난달 29일 1차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차 검사 결과 이날 오전 7시50분 양성으로 최종 확진됐다.
이 요양원의 입소자와 종사자 69명은 2차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목포에서도 감염원이 밝혀지지 않은 개인택시 기사(전남 128번)의 부인(전남 131번)이 감염된 데 이어, 이 부인과 접촉한 60대 요양보호사(전남 143번)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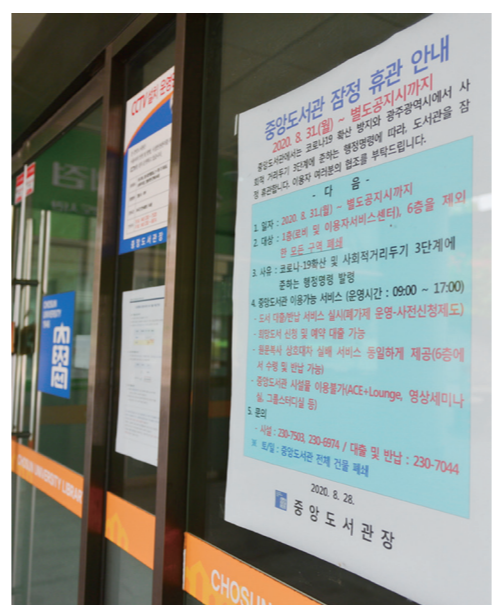
이 요양보호사는 전남 131번과 지난 25·26일 지역 대안학교인 목포 제일정보고등학교의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봤다.
이 요양원 역시 아직까지 추가 감염자는 나오지 않고 있다. 두 요양원 모두 2주간 코호트 격리조치 됐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호소문을 통해 “중요한 국면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일주일간 마스크 착용과 외출자제 등 5만 군민 멈춤의 시간”을 갖자”고 말했다.
김미희기자

코로나로 문 닫힌 학습 공간...대학생들 ‘울상’

도서관·스터디카페 운영 제한·금지로 학업 불편

코로나19로 학습 공간 이용이 제한되면서 광주 지역 대학생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일 전남대·조선대 학생들에 따르면, 최근 도서관·스터디 카페 등 학습 공간의 운영이 제한·금지되면서 일부 학생들이 학업에 불편을 겪고 있다.
조선대는 전남부터 중앙도서관 1층 로비를 제외한 전 열람실을 폐쇄했다. 도서관에서 학습을 하던 학생들은 이로 인한 고충을 토로했다.
재학생 김모(25)씨는 “도서관에서 주로 공부를 했는데 이번 폐쇄 조치로 스터디 카

페를 다니고 있다”며 “공부 환경이 바뀌다 보니 전보다 학습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스터디 그룹을 통해 고시준비를 하는 학생들도 고충을 겪고 있다. 주번 스터디 카페가 신규 회원을 받지 않으면서 학습 공간을 대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임용고사 준비생인 A(23·여)씨는 “스터디룸 대여가 어려워 제대로 된 공부를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온라인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만나서 하는 것보단 결속력이 떨어진다”며 “앞으로 시험 준비가 잘



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광화문 발’ 나주혁신도시서 두번째 확진

광화문 집회 거짓 진술, 슈퍼 전파자 '광주 284번' 감염경로

광주·전남 지역에서 광화문 집회 발 'n차 감염'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은 가운데 연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남(31일) 오후 나주혁신도시(빛가람동)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A씨가 무증상 상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전남 146번 환자로 분류됐다.
A씨는 나주 다도면에 마련된 광주·전남 공동 감염증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됐다.
역학조사 결과 A씨는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인 광주 284번과 빛가람동 거주 B씨(광주 316번)와 모두 같은 광주 북구 성림침례교회 다니는 교인으로 파악됐다.
B씨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A씨는 1차 검사 당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자가격리 해제 직전에 실시한 재 검사에선 양성으로 확진됐다.
추가 접촉자와 동선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주혁신도시 내 '광화문→성림침례교회 발' 감염경로는 지난 26일 확진된

B씨로부터 시작됐다.
B씨는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광주 284번과 같은 교회에서 접촉한 이후 감염됐다.
60대 여성인 '광주 284번'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로 일관해 방역 당국의 감염증 차단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이른바 '슈퍼 전파자'로 분류된다.
앞서 방역당국은 B씨가 나주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협력업체에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자 지난달 27일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과 주민 등 1141명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진단 검사를 실시했다.
당시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검사 대상자 중 한 명이었던 A씨가 자가격리 해제 전 무증상 상태에서 이뤄진 2차 검사에서 확진돼 감염증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광주 성림침례교회 교인 5명 중 2명이 확진되자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해 나머지 교인들에 대한 역학조사와 방역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서선욱기자

N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